

『三國遺事』 塔象 皇龍寺丈六條의 초주 환희사와 원효

하 도 겸*

【국문초록】

황룡사에서 『금강삼매경론』을 강설한 元曉는 骨로서 황룡사가 소속사찰인 승려였다. 삼국유사 탑상의 황룡사장육조는 황룡사구층탑조에서 일연사후에 재편집된 조목 가운데 하나인 듯, 문장 가운데 갑자기 금당과 역대 주지에 대한 내용 등이 나타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흥륜사금당십성 가운데 제2주인 자장 등은 보이는 반면에 환희사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환희지란 초지보살의 다른 말로 그러한 능력을 보인 승려는 원효가 유일하다. 원효가 환희사로 기록된 이유는 계율을 강조하는 제2주 자장과 원효의 무애행을 이해 못하는 승려 등 때문이었던 듯하다.

【주제어】

元, 진나보살, 『삼국유사』, 탑상, 황룡사장육조, 선덕왕, 초지보살, 무애행

* 국립민속박물관 민속연구과 학예연구사

목 차

- | | |
|---|----------------------------|
| I. 머리말
II. 원효의 골품과 소속사찰
III. 『三國遺事』 皇龍寺丈六條 ‘善德王代’의 의미와 황룡사편의 관계 | IV. 황룡사초주환회사와 원효
V. 맺음말 |
|---|----------------------------|

I. 머리말

원효의 속성을 설씨이고 兒名은 誓幢(또는 新幢)이다. 法名은 스스로 元曉라고 지었는데, 이는 불교를 새로 빛나게 한다는 뜻이며 당시 사람들은 ‘새벽 [始旦]’이라는 뜻의 우리말로 불렀다고 전해진다. 617년(진평왕 39년) 押梁郡 佛地村, 지금의 경상북도 경산시 자인면 북쪽 (栗谷에서 태어났으며, 조부는 仍皮公(또는 赤大公)이고, 아버지는 신라 17관등 가운데 11위 柰麻의 지위에 있던 談捺이다. 薛聰을 낳은 뒤에 스스로 小性居士(또는 卜性居士)라고 칭하기도 했으며, 고려 숙종 때(1101년)에는 대각국사 의천의 적극적인 천거로 大聖和靜國師라는 諡號를 받았다. 한국 불교 사상의 발달에 크게 기여하여 海東菩薩, 海東宗主라고도 불린다.

자세히 살펴보면, 15세 무렵에 집안의 재산을 흠捨하고 출가하여 자신의 집을 절로 지어 初開寺라고 하였다. 그리고 자신이 태어난 娑羅樹 곁에 沙羅寺를 세웠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朗智와 惠空 등의 고승에게 불법을 배웠다고 전해지며, 完山州에 머무르며 강론하던 고구려의 승려 普德에게 涅槃經과 維摩經 등을 배웠다는 기록도 있다. 그러나 특별하게 한 명의 스승을 정해 놓고 배우지는 않았으며, 스스로 깨달음을 얻었다고 전해진다. 648년(진덕여왕 2년)에는 皇龍寺에서 불경을 연구하며 수도하였다.

650년(진덕여왕 4년), 義湘과 함께 玄奘이 인도에서 새로 들여온 新唯識을 배우기 위해 唐 나라로 유학을 떠나려 했으나 遼東에서 諜者로 몰려 사로잡히

면서 실패하였다. 661년(문무왕 원년)에 다시 의상과 함께 당 나라로 떠나려 하였으나, 배를 타러 唐項城으로 가던 길에서 진리는 밖에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 찾아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고 되돌아왔다. 밤에 오래된 무덤에서 잠을 자다가 잠결에 해골에 권 물을 마시고 '이 세상의 온갖 현상은 모두 마음에서 일어나며, 모든 법은 오직 인식일 뿐이다. 마음 밖에 법이 없는데, 어찌 따로 구할 필요가 있겠는가[三界唯心 萬法唯識 心外無法 胡用別求]'라는 깨달음을 얻었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그 뒤 芬皇寺 등에 머무르며 불경의 연구와 『華嚴經疏』 등의 저술에 힘쓰기도 하였으나, 瑤石公主와의 사이에서 薛聰을 낳은 뒤에는 스스로 小性居士라고 칭하며 서민 속으로 들어가 불교의 대중화에 힘썼다. 광대들이 가지고 노는 큰 박으로 도구를 만들어 이를 '無碍'라 하였다. 無碍는 '일체의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 한 길로 삶과 죽음을 넘어설 수 있다[一切無碍人 一道出生死]'는 華嚴經 구절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이를 가지고 각지를 떠돌며 불교의 교리를 쉬운 노래로 만들어 전했다. 그는 사람들에게 본래의 마음을 깨달으면 淨土를 이룰 수 있으며, 입으로 부처의 이름을 외우고 귀로 부처의 가르침을 들으면 성불할 수 있다고 가르쳤다. 이러한 원효의 활동으로 신라의 백성들은 모두 부처의 이름을 알고 '나무아미타불'의 염불을 외우게 되었다고 전해진다.

위의 내용이 학계의 대부분이 인정하고 일반인들도 아는 원효에 대한 통설적 내용이다. 필자는 통설이니, 대세라는 단어가 학계에서 사라져야 할 비과학적인 용어라고 생각한다. 누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거나 동의한다는 말 등은 '강요성'이 노정된 언어도단이라고 여겨진다. 자유로운 사고가 기본인 인문학을 근거 없이 '대세', '통설' 등으로 포장하는 것은 학문의 발전에 장애가 될 따름이다. 같은 사료를 가지고 보다 자세한 근거 사료를 제시하지 않고 서술된 소위 '대가'의 논문을 아무런 검토없이 재인용하는 행태가 21세기 사학사에서는 사라졌으면 하는 어려운 소망을 가져본다.

본고에서는 먼저 1장에서는 위의 설씨라는 속성, 신분인 골품에 대한 재론과 함께 원효의 소속사찰로서의 황룡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의 6두품설과 달리 본고에서는 진골설을 주장한 전고를 다시 보충했다. 불교에서 '깨달음'은 온갖 고정관념에 대한 '깨침'의 의미를 내포한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상식'은 학문적인 이데올로기일 따름이다. 스승이나 대가의 논저라고 해서 아무런 저항없이 받아들이는 것은 '죽은 학문'의 양적인 확대를 초래할 따름이다. 최근 학계의 연구사를 보면 1년에서 3년을 넘게 '의미'를 가진 논문 등의 학문적 성과를 찾기 어렵다. 10년이나 30년이 아닌 자신이 살던 세대를 넘은 그런 장기적인 의미를 갖는 논문은 역시 '참신'에 있다는 생각이 든다. 몇몇 새롭게 발견되고 있는 금석문에 기대하는 '한국고대사'는 그 자체가 의존성이 너무 강하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사료의 '풍부성'을 인정하고 그것조차 제대로 활용 못하는 우리 역사학계의 부족한 '자립성'에 대한 강한 의문을 화두처럼 제시해야 할 시기가 지금이 아닌가 싶다. 이런 측면에서 기존의 골품제설에 따른 원효의 골품에 대한 의문을 다시한번 제기해 보고자 한다.

다음 2장에서는 『三國遺事』 皇龍寺丈六條에 나오는 '善德王代' 전후 기사 of 편집 가능성에 대한 추론을 하고자 한다. 사서의 완결성이 아닌 불안정성에 대한 몇가지 추론을 통해 암호화된 원효관계기사에 대한 접근을 시도해 본다. 지금의 원효를 비롯한 『三國遺事』 등의 제사료에 대한 해석이나 논저를 보면 사학사적인 측면에서 한걸음 간 곳에서 다시 한 걸음 나아간다는 '계승'을 통한 '발전'을 너무 당연시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하지만 선대가 걸어간 한 걸음의 의미는 중요하더라도 그 한걸음이 디디고 서 있는 땅이 단단한 바위인지 굳은 땅인지 진흙탕인지 아니면 허공에 서 있는 것인지에 대한 엄밀한 사료비판은 식민사학을 극복한 작금의 우리 학계의 풍토에 의해 경원시되고 있는 듯한 모습도 보인다. 사서는 저자가 살아생전에 집필하고 편집하고 출판된 것이라면 사료비판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서서들에 비해 커다란 문제는 없을 수 있다. 생전에 출판되지 못한 책의 경우 저자가 어디까지 집필했고 그 유작을 누가 손대고 편집했으며 출판인들의 손을 거치면서 오탈자를 비롯한 문헌적 변용이 어디까지 일어났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이것이 역사

가 과학일 수 있는 담보가 되는 사료비판이고 그러한 시도 자체는 반드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불교나 유교적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그러한 시도 자체가 '저자' 등에 대한 '불경'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감정적인 소비일 따름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필자는 사서안의 편목과 조목간의 유기적 관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완성도'와 '편집도'에 대해서 재론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황룡사의 '初主'로 등장하는 진골 환희사와 원효와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원효는 파계 즉 환속 후에 다시 출가했다는 사료는 전하지 않는다. 그의 말년의 기사나 설총 그리고 그 손자 등의 행적을 보면 원효는 출가승려가 아닌 재가승려로 입적한 것으로 보여진다. 지금도 환속한 승려에 대한 승가의 냉정한 시각은 상존한다. 출가승으로 은처하는 것은 용서받아도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파계를 인정하고 환속한 재자가에 대한 차가운 눈길은 참으로 모순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다. 특히 환속 후에도 출가승려보다도 활발하게 활동하며 상구보리와 하화중생이라는 보살행을 실천한 거사에 대한 평가는 심하게 평가절하되어 있다. 본고의 제목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환희사는 바로 원효 즉 소성거사이다. 거사라는 이유만으로 황룡사 승려 등은 비롯한 신라불교사에서 철저히 은폐되어온 그의 실체가 역사상 어떻게 숨겨져 왔는지에 대한 추적의 단초를 열어 보고자 한다.

Ⅱ. 원효의 골품과 소속사찰

신라시대 왕의 성씨인 박씨와 석씨 그리고 김씨 이외의 성씨는 지금과 같은 '가부장제'적인 족성의 의미로 조선중기 이후의 완성된 성씨로 보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¹⁾ 설계두가 귀족이 아니라고 해서 같은 설씨인 설총이나 설중업을 비롯해 원효 역시 진골이 아니었다고 한다. 그러나, 仍皮公-談捺-元曉-薛

1) 崔在錫, 1987, 「新羅時代의 氏族·리니지의 存否問題」, 『韓國學報』 48, 일지사 ; 1987, 『韓國古代社會史研究』, 一志社.

聰-薛仲業으로 이어지는 가계에 대해 기존의 6두품설²⁾과 5두품설과는³⁾ 달리 진골귀족출신이었다는 견해가 제시된 바 있다.

첫째, 원효스님의 조부 잉피공의 호칭에서 보이듯이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등 제사료에서 왕실을 비롯한 최고귀족만이 사용하는 ‘公’을 칭하고 있다.⁴⁾ 둘째, ‘大廟’ 등의 ‘廟’의 용례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모두 왕실의 전유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당인 잉피공 ‘廟’까지 존재하고 있다.⁵⁾ 셋째, 원효스님의 아들인 설총은 추측된 나마 이상의 진골귀족들이 전유했던 고질로 적합한 관등까지 승진했다.⁶⁾ 넷째, 원효스님의 파계 즉 요석공주와의 혼인은⁷⁾ 당시 신라골

2) 李基白, 1971, 「新羅 六頭品研究」, 『성곡논총』 2 : 1974, 『新羅政治社會史研究』, 一潮閣.

3) 田美姬, 1988, 「元曉의 身分과 그의 活動」, 『韓國史研究』 63, 韓國史研究會, 68~69쪽.

盧重國, 1999, 「新羅時代 姓氏의 分枝化와 食邑制의 實施-薛瑤墓誌銘을 中心으로-」, 『韓國古代史研究』 15, 한국고대사학회.

4) 「聖師〈元曉〉俗姓〈薛〉氏 祖〈仍皮公〉亦云〈赤大公〉今〈赤大淵〉側有〈仍皮公〉廟 父〈談捺〉乃末 … 母既娠而月滿 適過此谷栗樹下 忽分產 而倉皇不能歸家 且以夫衣掛樹 而寢處其中 因号樹曰〈娑羅樹〉 … 師之行狀云 “是京師人 從祖考也.” … 第名〈新幢〉(『三國遺事』卷第四 義解第五 元曉不羈條) 한편,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모두 이름 뒤에 공이 붙은 사람들의 용례를 조사해 보면, 高墟村長蘇伐公, 春秋公, 王妃의 父인 起烏公과 夙明公 등, 庾信公, 王子인 美海公, 關川公, 林宗公, 述宗公, 虎林公, 廉長公, 庾信公, 舒玄公, 車得令公, 述宗公爲朔州都督使, 純貞公赴江陵大守, 宗戚及公卿大夫, 太子居登公, 國仙瞿曇公 등 모두 왕족이거나 최고귀족으로서 적어도 진골이상일 개연성이 큰 인물들뿐이다. 따라서 이것만으로도 원효의 조부는 진골일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5) 잉피공묘는 잉피공이 압독국의 국왕이었기 때문에 별도로 묘가 있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6) “〈薛聰〉字〈聰智〉祖〈談捺〉奈麻 父〈元曉〉初爲桑門 淹該佛書 既而返本 自號〈小性居士〉〈聰〉性明銳 生知道待術 以方言讀九經 訓導後生 至今學者宗之 又能屬文 而世無傳者 但今南地 或有〈聰〉所製碑銘 文字缺落不可讀 竟不知其何如也 … 遂擢〈聰〉以高秩 世傳〈日本國〉真人 贈〈新羅〉使〈薛〉判官詩序云: “嘗覽〈元曉〉居士所著《金剛三昧論》 深恨不見其人 聞〈新羅〉國使〈薛〉即是居士之抱孫 雖不見其祖 而喜遇其孫 乃作詩贈之.” … 年十八入〈唐〉遊學

품제 사회내에서는 진골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다섯째, 왕실 귀족과 관련 깊은 황룡사, 흥륜사 등에 주석한 바 있다. 여섯째, 의상과 함께 유학을 떠날 정도로 동등한 신분이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⁸⁾ 따라서 원효는 신분적 한계로 인해서 민중불교에 관심을 쓴 것이 아니라, 당대의 최고귀족인 진골이면서도 무애행을 하면서 대중불교의 시초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⁹⁾

『송고승전』의 저자 찬녕은 원효의 전생애를 일반적인 전기의 예처럼 연대를 따라 체계적으로 서술하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원효의 생애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실들, 예컨대 오도와 환속 등에 대해서도 침묵해 버렸다는 평가가 있다.¹⁰⁾ 하지만, 순서상 같은 권제사이면서도 의상전이 원효전보다 앞서 편재된 까닭에 의상전에 실려있는 원효의 입당포기와 오도계를 원효전에서 중복하지 않았기 때문일 뿐이다. 그런 『송고승전』에서 원효를 승복사나 분황사가 아닌 황룡사 원효라고 불렀다.¹¹⁾ 전기가 있는 해동 11명의 승려들 가운데도 소속사

禮部侍郎〈薛廷珪〉下及第 四十二還國爲執事侍郎瑞書院學士 及〈太祖〉開國 入朝 仕至翰林院大學士平章事 卒諡〈文英〉 〈金大問〉本〈新羅〉貴門子弟 〈聖德王〉三年爲〈漢山州〉都督 …”(『三國史記』卷第四十六 列傳第六 薛聰傳) 한편, 설총이 당대에 이르러서 성을 왜 설씨라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7) 師嘗一日風顛唱街云 “誰許沒柯斧 我斫支天柱?” 人皆未喻 時 〈太宗〉聞之曰 “此師殆欲得貴婦 產賢子之謂爾 國有大賢 利莫大焉” 時〈瑤石宮〉有寡公主 勅宮吏覓〈曉〉引入宮吏奉勅將求之 已自〈南山〉來過〈蚊川橋〉遇之 伴墮水中濕衣袴 吏引師於宮 褫衣曬曬 因留宿焉 公主果有娠 生〈薛聰〉 〈聰〉生而睿敏 博通經史 〈新羅〉十賢中一也 (元曉不羈條)

8) 如昔有東國元曉法師·義相法師 二人同來唐國尋師 遇夜宿荒 止於塚內 其元曉法師 因渴思漿 遂於坐側 見一泓水 掬飲甚美 及至來日觀見 元是死屍之汁 當時心惡 吐之 豁然大悟 乃曰: “我聞佛言 ‘三界唯心 萬法唯識’ 故知美惡在我 實非水乎” 遂卻返故園 廣弘至教(『宗鏡錄』卷11, 『大正藏』48. 477.a)

唐僧元曉者海東人 初航海而至 將訪道於名山 獨行荒陂 夜宿塚間渴甚 引手掬于穴中 得泉甘涼 黎明視之髑髏也 大惡之 盡欲嘔去 忽猛省 大嘆曰 心生則種種法生 心滅則髑髏不二如來 大師曰 三界唯心 豈欺我哉 遂不復求師 即日還海東 疏華嚴經 大弘圓頓之教(『林間錄』卷上, 『卍續藏』148. 590. a)

9) 하정용, 2004, 「원효의 골품에 대하여」, 『元曉學研究』8, 元曉學研究院.

10) 金相鉉, 2000, 『元曉研究』, 民族社, 59~60쪽.

찰을 밝히지 않은 스님이 4명이나 존재한다.¹²⁾ 이는 贊寧이 恣意的으로 所屬 寺刹을 만들어 내지는 않았다는 證據라고 할 수 있다. 所屬寺刹을 밝히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불교의 종파적인 法統 및 宗旨로 다시 말해서 傳燈의 宗派와 正統性이다.¹³⁾

- 11) 『宋高僧傳』 卷第四 義解篇第二之一 “唐新羅國黃龍寺元曉傳” 釋元曉 … 嘗與湘法師入唐 慕樊三藏慈恩之門 厥緣既差息心遊往 無何發言狂悖示跡乖疏 同居士入酒肆倡家 … 時國王置百座仁王經大會遍搜碩德 本州以名望舉進之 諸德惡其爲人 譖王不納 居無何 王之夫人腦嬰癰腫 … 金剛三昧經 … 造疏成五卷 王請剋日於黃龍寺敷演 時有薄徒竊盜新疏 以事白王 延于三日 重錄成三卷 号爲略疏 洎乎王臣道俗雲擁法堂 曉乃宣吐有儀解紛可則 稱揚彈指聲沸于空 曉復昌言曰 昔日採百椽時雖不預會 今朝橫一棟處唯我獨能 時諸名德俯顏慚色伏膺懺悔焉 初曉示跡無恒化人不定 或擲盤而救衆 或噴水而撲焚 或數處現形 或六方告滅 亦孟渡誌公之倫歟 其於解性覽無不明矣
- 12) 다음 표는 “하정용, 2005, 『『宋高僧傳』 元曉 關連記事의 性格』, 『元曉學研究』 9, 芬皇寺 元曉學研究院에서 재인용

卷次	篇次	條目名	出身 및 寺刹 關連 內容
1	卷第四 義解篇第二之一	唐 京師 西明寺圓測傳	未詳氏族也.....測於西明寺鳴鐘召衆。稱講唯識。
2		唐新羅國 順環傳	浪郡人也。本土之氏族。東夷之家系。.....
3		唐新羅國 義湘傳	俗姓朴。雞林府人也.....湘乃徑趨長安終南山智嚴三藏所。綜習華嚴經.....號海東華嚴初祖也
4		唐新羅國 黃龍寺元曉傳	姓薛氏。東海湘州人也.....始終於牛車造疏成五卷。王請剋日於黃龍寺敷演
5	卷第十四 明律篇第四之一	唐百濟國 金山寺眞表傳	百濟人也。家在金山世爲弋獵。.....同造伽藍號金山寺焉。
6	卷第十八 感通篇第六之一	陳新羅國 玄光傳	海東熊州人也。.....光末之滅罔知攸往。南嶽祖構影堂。內圖二十八人。光居一焉。天台國清寺祖堂亦然
7	卷第十九 感通篇第六之二	唐 成都 淨衆寺無相傳	本新羅國人也。是彼土王第三子。於本國正朔年月生。於群南寺落髮登戒。以開元十六年泛東溟至于中國到京。玄宗召見隸於禪定寺。.....由是遂勸檀越造淨衆大慈菩提寧國等寺。
8	卷第卅 感通篇第六之三	唐 池州九華山化城寺地藏傳	姓金氏。新羅國王之支屬也。.....號爲九華焉.....相與同構禪宇.....奏置寺焉。
9	卷第卅一 感通篇第六之四	唐 朔方 靈武下院無漏傳	姓金氏。新羅國王第三子也。.....肅宗訓兵靈武.....置之內寺供養.....先是漏行化多由懷遠縣。因置摩訶。謂之下院
10	卷第卅三 感通篇第六之六	晉 天台山平田寺道育傳	新羅國人也。本國姓氏未所詳練。.....挂錫於平田寺衆堂中。
11	卷第卅 雜科聲德篇第十之二	唐高麗國 元表傳	本三韓人也.....躬率信士迎出甘露都尉院。其紙墨如新繕寫。今貯在福州僧寺焉。.....

- 13) 河廷龍 1999, 『指空の高麗觀と 法統』, 『三大和尚研究論文集』2, 佛泉.

원효가 『金剛三昧經論』을 찬술할 때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설화가 전하여 온다. 한번은 국왕이 100명의 高僧大德을 초청하여 仁王經大會를 열었을 때 湘州 사람들이 원효를 천거하자, 다른 승려들이 그 인품이 나쁘다고 헐뜯었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런 일이 있는 뒤 왕후가 종기를 앓게 되어서 아무리 좋은 약을 다 써도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 왕은 왕자와 신하들을 거느리고 영험이 있다는 명산대천을 다 찾아다니며 기도를 드리던 중 한 무당이 말하기를, “사람을 다른 나라에 보내어 약을 구하게 하면 그 병이 곧 나을 것”이라고 하였다. 왕은 곧 당나라에서 좋은 약과 의술에 능한 사람을 구하도록 사신을 보냈다. 왕명을 받은 사신 일행이 바다 한가운데 이르자 바닷물 속으로부터 한 노인이 솟아올라 사신들을 용궁으로 데리고 갔다. 용왕은 자기의 이름을 鈐海라 하며,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다. “경들 나라의 왕비는 바로 靑帝의 셋째 공주요, 우리 용궁에는 일찍부터 『금강삼매경』이라는 불경이 전하여 오는데 始覺과 本覺으로 되어 있소. 원만하게 열린 菩薩行을 설명하여 주는 불경이요, 신라 왕비의 병으로 인하여 좋은 인연을 삼아, 이 불경을 당신들의 나라로 보내어 널리 알리고자 사신들을 부른 것이요.”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원효가 이 『금강삼매경』에 대한 주석서 3권을 지어 황룡사에서 설법하게 되었다. 왕을 비롯하여 왕비와 왕자·공주, 그리고 여러 대신들과 전국의 절에서 온 명망 높은 고승들에게 원효는 『금강삼매경』의 강해(講解)를 시작하였다. 그의 강설은 흐르는 물처럼 도도하고 질서정연하여, 오만하게 앉아 있던 고승들의 입에서 찬양하는 소리가 저절로 흘러나왔다. 『금강삼매경』의 강설을 끝내고 원효는 “지난 날 나라에서 100개의 서까래를 구할 때에는 그 속에 끼일 수도 없더니, 오늘 아침 단 한 개의 대들보를 가로지르는 마당에서는 나 혼자 그 일을 하는구나.” 하였다. 이 말을 들은 고승들은 부끄러워하면서 깊이 뉘우쳤다고 한다. 그 뒤 조용한 곳을 찾아 수도와 저술에만 전념하였다.

왕실사찰 가운데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황룡사에서의 원효의 『금강삼매경』의 강론은 대승불교 가운데 대중불교로의 신라불교의 내연 및 외연의 확대를 예고하는 신호탄이다. 원효의 불교개혁운동의 기념비적인 선언과 왕실의 공인

을 의미한다. 高仙寺誓幢和尚塔碑文 등을 입수했을 것으로 보이는 찬녕은 분황사, 황복사와 함께 황룡사를 원효의 소속사찰로 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¹⁴⁾

이 논문에서는 이와 같이 진골출신일 가능성이 있는 황룡사 원효가 왜 지금까지 진골이라는 점과 황룡사라는 절에서 어떻게 잊혀져갔을까?

Ⅲ. 『三國遺事』 皇龍寺丈六條

‘善德王代’의 의미와 황룡사편의 관계

원효의 소속사찰 가운데 하나인 황룡사 관련 자료에는 원효라는 이름이 거의 나오지 않는다. 다만, 황룡사장육(皇龍寺丈六)에는 皇龍寺와 關連된 여러 스님의 이름이 아래와 같이 나온다.

①신라 제24대 진흥왕(眞興王) 즉위 14년 계유 2월 장차 궁궐을 용궁(龍宮)의 남쪽에 지으려 하는데 황룡(黃龍)이 그 땅에 나타나서 이에 고쳐서 절을 짓고 황룡사(黃龍寺)라고 하였다. 기축년(569년)에 이르러 담을 두르고 17년 만에 바야흐로 완성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바다 남쪽에 큰 배가 하곡현(河曲縣)사포(絲浦)에 정박하였다. 조사하여 보니 첩문이 있었는데 “서축(西竺)의 아育왕(阿育王)이 황철(黃鐵) 5만 7천근과 황금 3만푼을 모아 장차 석가삼존상을 주조하려고 하였으나 아직 이루지 못해 배에 실어 바다에 띄웠고 축원하여 ‘원컨대 인연이 있는 나라에 이르러 장육존용(丈六尊容)을 이루어라’”라고 하였다. 아울러 일불이보살상(一佛二菩薩像)의 모형도 실려 있었다. 현의 관리가 장계를 갖추어 왕에게 아뢰니 사자를 시켜 그 현의 성 동쪽 시원하고 높은 곳을 골라 동축사(東竺寺)를 창건하고 그 삼존불을 맞아서 안치하였다. 그 금과 철은 서울로 옮겨와서 대건(大建) 6년 갑오 3월에 장육존상을 주성하여 한 번에 이

14) 하정용, 2005, 『『宋高僧傳』 元曉 關連記事의 性格』, 『元曉學研究』 9, 芬皇寺元曉學研究院.

루었다. 무게는 3만 5천 7근으로 황금 1만 1백 9십 8푼이 들어갔고, 두 보살에는 철 1만 2천 근과 황금 1만 1백 3십 6푼이 들어갔다. 황룡사에 안치하였다. 다음해(575년)에 장육존상이 눈물을 흘렸는데 발꿈치까지 이르러 땅 1척을 적셨다. 대왕이 승하할 조짐이었다. 혹은 존상이 진평왕 대에 이루어졌다고 하기도 하는데 잘못이다. ... ②절의 기록에는 진평왕 5년 갑진(584년)에 금당 조성되었다고 한다. ③선덕왕 대. ④절의 초주는 진골인 환희사(歡喜師)였고, ⑤제2주는 자장 국통이고 그 다음은 국통 혜훈(惠訓), 그 다음은 상률사(龐律師)이다”라고 하였다. ⑥지금 병화가 이미 있어서 큰 불상과 두 보살상은 모두 녹아서 사라졌고 작은 석가상은 아직 남아 있다.¹⁵⁾

문장심리학적으로 볼때, ①은 장육조의 주요내용으로 장육의 조상 및 봉안에 대한 내용으로 제목에 상응하는 내용으로 문맥전개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 다만, ②에서 황룡사 금당에 대한 추가되고 있다. 황룡사구층탑조도 있지만, 불상이 봉안된 황룡사 금당이기에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황룡사 금당조로 독립하기에는 내용이 적은 것도 한 이유였을 것이다. 특히 황룡사 관련 내용을 시대별로 내용별로 서술하려는 듯한 의도가 엿보인다.¹⁶⁾

언뜻보기에는 ③선덕왕대이하는 선덕왕대 이후의 기사인 것으로 보이며, ⑥이하는 고려후기 몽고침입이후에 해당한다. 문제는 ③④⑤가 모두 선덕왕대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초주와 제이주를 모두 초대주지 및 2대주지로 해석하고 있다. 그렇다면 ④⑤에 나오는 네 명이 과연 ③선덕왕대에 모두 주지를 했을까?라는 합리적인 의문 즉 사료비판을 할 수 있다. 만약 ③④⑤가 하나의 문장이라고 한다면, 네명 모두 선덕왕대 주지로 임명된 자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답부터 말하자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진흥왕대 완성된 황

15) ①…②『寺記』云 “〈眞平〉五年甲辰, 金堂造成, ③〈善德王〉代, ④寺初主眞骨〈歡喜師〉, ⑤第二主〈慈藏〉國統, 次國統〈惠訓〉, 次〈龐律師〉云 ⑥今兵火已來, 大像與二菩薩皆融沒, 而小〈釋迦〉猶存焉(『三國遺事』塔象 皇龍寺丈六條)

16) 寺記는 황룡사기라는 사지로 보고 있다. 한편, 『삼국유사』의 자장의 사적은 속고승전 자장전과 신라 하대 전기에 지어진 것으로 여겨지는 자장전을 근거로 한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다만, 이 부분의 해석에서는 어디까지가 자장전을 근거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

룡사에 진평왕을 지나 선덕왕대 처음으로 사찰의 주지가 임명될 이유는 그다지 없어보인다. 굳이 황룡사의 주지가 진흥왕대가 아닌 선덕왕대 처음 임명되었다면, 황룡사구층탑의 완성과 관련된 일일 수 있다.

<표 1> 신라 황룡사와 원효 연보 관련 연표

新羅王代와 王曆	西曆	元曉年齡	關連事項
24代 眞興王14年	553		皇龍寺命名
24代 眞興王30年	569		皇龍寺塔(寺域)完成
24代 眞興王35年	574		장육존상봉안
26代 眞平王5年	582		皇龍寺金堂落成
26代 眞平王12年	590		자장율사 탄생
26代 眞平王39年	617	0	元曉聖師誕生
27代 善德女王元年(眞平王54年)	632	15	出家(無師獨悟)
27代 善德女王5年	636		자장, 제자들과 도당
27代 善德女王15年	646	29	皇龍寺九層塔完成
28代 眞德女王元年(善德女王16年)	647	30	진덕여왕즉위
28代 眞德女王4年	650	33	義湘과 渡唐試圖
29代 太宗武烈王元年(眞德女王8年)	654	37	태종무열왕즉위
30代 文武王元年(太宗武烈王8年)	661	44	再渡唐試圖, 悟道, 문무왕즉위
30代 文武王11年	671	54	義湘歸國
31代 神文王元年(文武王21年)	681	64	신문왕즉위
31代 神文王6年	686	69	元曉聖師入滅

643년에 ⑤자장은 귀국해서 분황사에 주석하면서 황룡사탑의 조성을 제안한다. 『찰주본기』에 따르면 645년 4월¹⁷⁾에 착공하여 다음해인 646년에¹⁸⁾ 완성된 것으로 나타난다.¹⁹⁾ 따라서 황룡사의 완성은 신앙의 중심이 되는 구층탑의 완

17) 『삼국사기』는 3월로 되어 있다.

“三月, 創造(皇龍寺)塔, 從(慈藏)之請也.”(『三國史記』新羅本紀 善德女王 十四年條)

18) 『삼국유사』는 645년에 완성되었다는 다른 전승을 전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잠정적으로 당대 기록에 가까운 찰주본기에 따른다.

19) “其十四年歲次乙巳, 始構建四月□□立剎柱, 明年乃畢功”(韓國古代社會研究

성을 의미하며, 당연히 이때부터 명실상부한 황룡사의 면모를 갖추게 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구층탑 완성 후 1년도 지나지 않은 647년 1월에 선덕여왕은 붕어한다. 따라서 이 짧은 시간안에 네 명의 주지가 임명되기는 매우 어렵다고 보여진다. 특히 자장율사가 초대도 아니고 2대가 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까닭에 선덕왕대와 절의 초주 등은 무관한 것일 수 있다. 결국 ③선덕왕대와 ④사초주는 연결이 안되는 독립적인 문장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③선덕왕대 이후의 기사가 사라진 것으로 보면 어떨까? 아마도 조목전체상으로 볼 때는 ③의 뒤에는 의미상 황룡사 구층탑 건립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③은 ④와 무관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렇다면 ③선덕왕대 이후의 기사가 과연 발췌되었을 가능성이 있는지 황룡사 제2주인 자장과 관련된 다른 용례를 통해서 잠시 살펴보자.

자장은 스스로 변방에서 태어난 것을 한탄하여 서쪽에서 불교의 교화를 배우기를 바랐다. 인평(仁平) 3년 병신(丙申) 곧 정관(貞觀) 10년에 칙명을 받아 문하의 중인 실(實) 등 10여 명과 함께 서쪽으로 당에 들어가 청량산(淸涼山)을 찾아갔다. 산에 만수대성(曼殊大聖)의 소상이 있는데 그 나라에 서로 전하여 말하기를 “제석천이 석공을 이끌고 와서 조각한 것이다”라고 한다. 자장 이 소상의 앞에서 기도하며 명감(冥感)을 하고는, 소상이 정수리를 쓰다듬고 범계(梵偈)를 주는 꿈을 꾸었다. 깨어나도 뜻을 알지 못했다. 아침이 되자 이상한 중이 와서 풀이해 주고 (이미 황룡사탑편에 나왔다.) 또 말하기를 “비록 만교(萬教)를 배우더라도 아직 이를 뛰어넘는 것이 없다”라고 하였다. 또한 가사와 사리 등을 주고 사라졌다. 자장은 처음에 그것을 숨겼기 때문에 《당고승전》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자장은 자신이 성인의 기별을 꿈꾼 것을 알고 이에 북대(北臺)를 내려가 태화지(太和池)로 갔다.²⁰⁾

위의 자장정율조에 나오는 ‘이미 황룡사탑편’에 나온다는 내용은 《삼국유사》

所 編, 1992, 『皇龍寺九層木塔剎柱本記』, 『譯註 韓國古代金石文』Ⅲ,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20) 卷第四 義解第五 慈藏定律條

탑상 황룡사구층석탑조(皇龍寺九層塔條)에는 사구계(四句偈)를 직접 해석해주는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 물론 앞의 황룡사장육존상조에도 나오지 않는다. 오히려 『삼국유사』 대산오만진신조(臺山五萬眞身條)에 ‘아과좌랑’은 일체 불교를 깨달았다는 말이고, ‘달예치거야’는 자기의 본성은 아무것도 없으며, ‘랑가이가랑’은 불교이치를 이렇게 해석하며, ‘달예노사나’는 노사나 부처를 곧 본다는 말이다”고 해석한다는 내용이 전한다.

대산오만진신조를 황룡사탑조라고 본 것이면 문제는 없다. 다만 그렇다면 사료의 신뢰도에 커다란 문제가 발생한다. 거꾸로 저자가 말한 황룡사탑조에 원래 기사가 있었고 이것이 재판집과정에서 조정되었다면 신뢰도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신뢰도 운운 이전에 『삼국유사』에는 황룡사구층탑조 즉 황룡사탑편이라는 조목이 존재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따라서 조목은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데 있다. 아울러 위의 대산오만진신조와 관련해서 삼국유사 조목간의 유기적 관계를 보여주는 용례가 하나 더 존재한다. 즉, 卷第三 塔像 溟州五臺山寶叱徒太子傳記」에는 아래와 같이 앞의 조목인 대산오만진신전을 가리키는 부분이 보인다.

毗盧遮那爲首 一萬文殊常住眞如院地 文殊大聖每日寅朝化現三十六形(三十六形見臺山五萬眞身傳).

文殊菩薩이 매일 아침 삼십 여섯 개의 형상으로 화현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臺山五萬眞身傳」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고 있다. 실제로 다음과 같이 자세한 내용이 대산오만진신조에는 전하고 있다. 따라서 삼국유사는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나 간혹 ‘편집’등으로 인해 예외가 있다는 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每日寅朝 文殊大聖到眞如院·今上院 變現三十六種形 或時現佛面形 或作寶珠形 或作佛眼形 或作佛手形 或作寶塔形 或萬佛頭形 或作萬燈形 或作金橋形 或作金鼓形 或作金鍾形 或作神通形 或作金樓形 或作金輪形 或作金剛杵形 或作金甕

形 或作金鈿形 或五色光明形 或五色圓光形 或吉祥草形 或青蓮花形 或作金田形 或作銀田形 或作佛足形 或作雷電形 或來湧出形 或地神湧出形 或作金鳳形 或作金烏形 或馬產師子形 或雞產鳳形 或作青龍形 或作白象形 或作鵲鳥形 或牛產師子形 或作遊猪形 或作青蛇形.

이와 같이, 『삼국유사』의 저자는 대산오만진신조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에 대한 정확한 기억을 다른 조목에 남겨 책을 읽는 독자의 편의를 도왔다. 따라서 앞의 황룡사탑조에 나왔다고 한 부분이 대산오만진신조에 나온 것은 이 내용이 본디 황룡사탑조에 있다가 옮겨져나, 대산오만진신조에 나오므로 생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그런 관점에서 다음 卷第三 塔像의 皇龍寺九層塔條를 보면 짧게 자장율사와 관련 다음의 내용이 보인다. 물론 꿈에 나타난 문수보살의 의미를 해석한 스님에 관한 부분은 나오지 않는다. 다만 짧게 같은 내용을 전하고는 있다.

“新羅第二十七善德王即位五年 貞觀十年丙申慈藏法師西學 乃於五臺感文殊授法.”

이와 같은 내용이 다음의 塔像 皇龍寺丈六條에는 보다 자세하고 전하고 있다.

後大德慈藏西學到五臺山 感文殊現身授訣 仍囑云 汝國皇龍寺 乃釋迦與迦葉佛 講演之地 宴坐石猶在 故天竺無憂王 聚黃鐵若干斤泛海 歷一千三百餘年 然後乃到 而國 成安其寺 蓋威緣使然也(與別記所載符同)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문수보살을 만난 간략한 사실은 황룡사구층탑조에 전한다. 문수보살이 부족한 내용은 황룡사장육조에 전한다. 끝으로 꿈에 나온 사구계의 내용은 대산오만진신조에 나온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삼국유사』가 제3자에 의해서 재편집되었을 가능성은 여러번 제기된 바 있다. 특히 紀異卷第一에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天賜玉帶條의 찬이 같은 신라삼보에 대한 기사를 전하는 皇龍寺九層塔條나 皇龍寺丈六條에서 옮겨졌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한 견해가 맞다면 여기서 慈藏定律條에서 가리킨, 황룡사

편의 내용이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는 곳은 대신오만진신조와 皇龍寺丈六條이므로 대신오만진신조와 皇龍寺丈六條 역시 皇龍寺九層塔條에 함께 수록되어 있던 내용일 가능성 역시 상존한다.²¹⁾

이와 같은 입장에서 다시 ③선덕왕대와 ④사초주 부분을 보면 이 사이에 황룡사탑조 등의 내용이 있었다가 옮겨졌을 개연성은 충분하다.

IV. 황룡사초주환희사와 원효

앞에서는 ③선덕왕대와 ④사초주가 연결되지 않은 독립적인 다른 문장일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입장에서 초주와 제2주 등을 살펴보기 전에 ‘寺初主’ 즉 절의 ‘初主’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존의 해석서나 논문 등은 초주를 초대 주지로 아무런 의심없이 받아들이고 있다. 그런데 『삼국유사』 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초주 또는 이주가 주지를 의미한다는 용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住持의 ‘住’는 초주의 ‘主’와 한자부터 다르다. 사의 초주는 아니지만 사주라는 이름은 찾을 수 있다. 국통을 ‘승통(僧統)’ 또는 ‘사주(寺主)’라는 용례는 있지만 표에서 보이듯 사초주는 국통의 의미가 있는 초대 사주가 아니다. 국통의 직은 551년(진흥왕 12)에 고구려에서 망명해온 혜량(惠亮)을 임명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시기상으로 자장 등이 국통을 칭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 보인다. 다만 이들이 초주와 이주, 그리고 삼주, 사주를 한다고 했을 때 ‘主’는 단순한 주지의 의미는 아닌듯하다. 더우기 창건주의 의미도 아닌듯하다. 황룡사가 진흥왕대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기상 맞지 않기 때문이다.

초주의 ‘主’는 한자 그대로 임금 또는 우두머리의 뜻이다.²²⁾ 결국 사주란 사

21) 하정용, 2001, 『『三國遺事』 諸條目間 關係考』, 『韓國史學史學報』 4, 韓國史學史學 : 2005, 『삼국유사사료비판』, 민족사 참조

22) 사찰의 주인은 왕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그런 해석이 타당하더라도 여

찰 최고의 스님으로 해당사찰을 대표하는 스님을 말할 수 있다. 황룡사의 어떤 스님이 있나? 또는 역대 최고의 스님은 누구인가 몇 명을 손 꼽을 수 있다. 그러는 과정에서 황룡사의 2,3,4주인 자장, 혜훈, 의상 등이 열거되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자장, 혜훈, 상울(또는 의상) 보다 뛰어난 초주는 누가 있을까?

<표 2> 황룡사의 4명의 '주'

寺初主	眞骨		歡喜師	
第二主			慈藏	國統
次		國統	惠訓	
次			廂律師	

<표 2>는 모두 제1, 2, 3, 4대의 '주'를 나열한 것으로 이들이 모두 진골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한자의 표기방식과 금석문

인명표기에 있어서의 생략법 등을 고려해 보면, 모두 진골일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제2주인 자장이 진골인 점은 사료에 나오고 있으므로,²³⁾ 惠訓과 廂律師 역시 진골일 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國統 역시 자장 뿐만 아니라 혜훈 역시 國통이므로 廂律師(상울 또는 의상) 역시 진골로서 國통일 가능성이 높다.

皇龍寺는 진흥왕대 宮闕을 지을려다 대신 지은 寺刹로 王察로서 國家中心寺刹이며, 앞서 살펴보았듯이, 眞骨이 住持를 역임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탑 조영을 한 자장보다 더 훌륭한 대표적인 황룡사 스님인 초주 歡喜師는 누군지 알 수가 없다. 모든 사람이 결국 납득할 수 밖에 없는 서사구조를 가진 그 환희사는 누구일까?

환희사의 환희는 승명인가? 이 승명이 본래 승명일까? 혹시 뭔가를 숨기고 있는 별명같은 것은 아닐까? 환희라는 스님 명이 뭔가 거부감이 느껴지는 것을 보면, 이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사전을 살펴보면 불교적으로 歡喜는 極喜라고도 하는 것으로 自他 모두에게 歡喜心을 불러일으키는 段階의 境地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初地菩薩을 歡喜菩薩이라고 한다. 불교 특히 華嚴에서는 菩薩의 修行段階를 52位로 說明한다. 凡夫位 十信, 十住, 十行, 十廻

기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23) “侍讀 右軍大監兼省公 臣 樸居勿 奉教撰 詳夫 皇龍寺九層塔者 善惠大王代之所建也 昔有善宗郎眞骨貴人也 少好殺生放鷹擊雉雉出淚 而泣感此發心請出家入道法号慈藏”(『皇龍寺九層木塔刹柱本記』)

向이며, 聖者位는 十地, 等覺, 妙覺으로 初地는 41위로 初地부터는 菩薩이라고 한다. 41위인 초지보살이 바로 환희지보살인 것이다.²⁴⁾ 따라서 환희사는 환희라는 법명이라기 보다는 초지보살 즉 환희지보살과 같은 존재였을 것이다.

東壁坐庚向泥塑〈我道〉〈馱羈〉〈惠宿〉〈安舍〉〈義湘〉西壁坐甲向泥塑〈表訓〉〈虫也巴〉〈元曉〉〈惠空〉〈慈藏〉.²⁵⁾

위의 사료에는 신라의 위대한 스님들을 열거하고 있다. 단순히 흥륜사와 관련있었던 스님이 아니라 신라 고승들이 열거되고 있다. 황룡사의 2주였던 慈藏도 들어 있는데, 그 앞에 초주를 했던 歡喜師는 왜 빠졌을까 의문스럽다. 3주나 4주면 몰라도 2주도 들어 있는데 新羅 最高의 寺刹인 皇龍寺의 初主로서 진골인 환희사가 빠졌을 리가 없다고 본다. 혹시 歡喜가 아닌 또 다른 이름을 가진 스님은 아닐까라는 여겨진다. 그리고 볼 때 위의 10인 가운데는 황룡사와 관련이 있는 사람이 한명 더 존재한다. 바로 제2주인 자장의 앞에 황룡사에서 자장과 마찬가지로 강론을 했던, 그리고 송고승전에서는 황룡사원효라고 했던 그 원효가 보여진다.

『古伝』昔有主寺者 給寺奴一人 一夕饑粟二枚 奴訟于官 官吏怪之 取粟檢之一枚盈一鉢 乃飯判給一枚 故因名〈栗谷〉 師既出家 捨其宅爲寺 ①名〈初開〉 樹之

24) 십지의 명칭으로는 “何等爲十 一曰歡喜 二曰離垢 三曰明 四曰焰 五曰難勝 六曰現前 七曰遠行 八曰不動 九曰善慧 十曰法雲 是十地者”(『大方光佛華嚴經』 권23, 十地品第二十二之一 大正藏 9, 547a)에 자세하며, 환희지보살에 대해서는 “菩薩住歡喜地 多作閻浮提王 豪貴自在 常護正法 能以大施攝取衆生 善除衆生慳貪之垢 常行大施 而無窮盡 所作善業 布施 愛語 利益 同事 是諸福德 皆不離念仏 不離念法 … 是菩薩若欲捨家勤行精進 於仏法中 便能捨家妻子五欲 得出家已 勤行精進 須臾之間 得百三昧 得見百仏 知百仏神力 能動百仏世界 能飛過百仏世界 能照百仏世界 能教化百世界衆生 能住壽百劫 能知過去未來世各百劫事 能善入百法門 能變身爲百 於一一身 能示百菩薩 以爲眷屬 若以願力 自在示現 過於此數 百千萬億那由他劫 不可計知”가 참고된다.

25) 『삼국유사』 탐상 東京興輪寺金堂十聖.

旁置寺曰〈娑羅〉師之行狀云“是京師人 從祖考也”… 嘗持此 千村万落且歌且舞 化詠而歸 使桑樞瓮鬪猿猴之輩 皆識仏陀之号 咸作“南無”之稱 〈曉〉之化大矣哉! ②其生緣之村名〈仏地〉 寺名〈初開〉 自称〈元曉〉者 蓋初輝仏日之意爾 〈元曉〉亦是 方言也 當時人皆以鄉言稱之始且也 … 曾住〈芬皇寺〉 ③纂『華嚴疏』至第四十廻向 品 終乃絶筆 又嘗因訟 分軀於百松 故皆謂位階初地矣 (『三國遺事』義解第五 元曉不羈)

위에 사료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釋迦와 비슷한 出生談을 가진 元曉는 의상 과 함께 신라불교에 있어서 菩薩이라고까지 칭하여 진 분이다.²⁶⁾ 元曉가 第40 廻向品에 이르러 絶筆했다는 것은 그의 位階가 初地에 이른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十廻向位 다음이 初地이기 때문이다. 뿐만아니라 백가지 몸으로 나타나는 元曉의 神通力은 바로 初地菩薩의 能力 바로 그것이다.²⁷⁾ 따라서 元曉는 初地菩薩로²⁸⁾ 歡喜地菩薩이라 할 수 있으며, 흔히 聖師라고도 했을 것이니, 따라서 원효보살을 歡喜師라고 불렀을 可能性이 充分하다.

26) 〈元和〉中(806~821) 〈南澗寺〉沙門〈一念〉撰『靑香墳禮佛結社文』載此事甚詳 其略曰 “…〈天壽〉六年 〈陳〉使〈劉思〉并僧〈明觀〉 奉內經并次 寺寺星張 塔塔 鴈行 豎法幢 懸梵鏡 龍象釋徒 爲寔中之福田 大小乘法 爲京國之慈雲 他方菩薩 出現於世 (謂〈芬皇〉之〈陳那〉 〈浮石〉〈寶蓋〉 以至〈洛山〉〈五臺〉等是也) 『三國遺事』 興法第三 原宗興法厭觸滅身條

27) “…按『華嚴經』第十名法雲地 今師之馭雲 蓋仏陀屈三指·〈元曉〉分百身之類也 歟…”(『三國遺事』避隱第八 朗智乘雲 普賢樹條)

“…元曉百處現形…”(義天, 『答大宋元炤律師書』, 『大覺國師文集』 권11)

28) 육신이 변화하여 100그루의 소나무에 몸을 나누었다는 것. 보살수행의 단계에서 제41위에서 50위까지를 10地라고 하며 10지 중의 첫 번째인 歡喜地를 初地라 한다. 10信에서 10回向까지는 범부이며, 초지 이상부터 성자의 위치에 들어간다. 화엄경 십지품에 ‘이 보살이 … 가정과 처자와 五慾을 버리고 출가하여 근행정진하면 … 능히 百法門에 들어갈 수 있으며, 능히 몸을 100으로 변화시킬 수 있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 중 맨 끝에 보이는 능히 몸을 100으로 변화시킨다고 한 것이 《삼국유사》에 언급된 내용이다. 즉 초지인 환희지의 보살은 그 몸을 100개의 몸으로 변화시킬 수 있으므로 원효는 초지의 보살 즉 성인의 경지에 올랐다는 의미이다(김영태, 1980, 『전기와 설화를 통해 본 원효연구』, 『불교학보』 17, 불교문화연구원).

지금까지 학계는 元曉를 6頭品또는 5頭品으로 보았기 때문에 진골인 歡喜師로 볼 여지가 없었다. 또한 분황사에만 얽매어 황룡사에서 『금강삼매경론』을 강설한 의미에 주목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元曉는 眞骨로서 황룡사의 스님이었다. 따라서 황룡사의 환희사가 원효일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여겨진다.

그런데 元曉가 歡喜師라면 근데 왜 그가 歡喜師라는 말이 소개되지 않았을까 궁금하다. 아마도 그 이유가 歡喜師라는 이름으로 歷史의 베일에 가려지게 되버린 이유이기도 할 것이기 때문이다. 알려진 이유로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원효의 무애행에 대한 불교계 등의 이해의 부족을 그 원인으로 들 수 있다. 원효는 瑤石宮寡公主와의 일로 破戒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며, 아마도 僧籍을 剝脫당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둘째, 당시 불교계 주도세력인 유가밀교계의 반발도 한 이유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애초에 인왕백고좌회에서 원효가 거부된 것을 통해서 볼 때 당시 기득권을 가진 유가밀교계의 반발을 쉽게 추정된다.

셋째, 無師獨悟한 원효에 비해서 자은문하에서 제대로 배워온 의상과 그의 제자들의 존재를 상정해 볼 수 있다. 8세기 이후 중앙에 진출하여 왕실귀족불교를 대표하게 되며, 원효를 평가절하한 의상계 제자들은 원효의 화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대중불교적인 표원 등 皇龍寺係에 대한 비논리적인 비판까지 하게 된다.²⁹⁾

넷째, 제2주라고 할 수 있는 자장의 존재를 들 수 있다. 자장은 황룡사의 제2대 사주 겸 대국통으로서 그와 관련한 화엄관계 내용도 있긴 하지만 그는 주로 대승불교를 총괄한 유식교학의 요강서인 십대승론을 강하거나, 또는 계본을 설하고 있다. 그가 창건한 통도사의 금강계단설치한 그는 율사이기도 하였다.³⁰⁾

29) 高翊晉, 1989, 『韓國古代思想史』, 東國大出版部.

30) 金福順, 1990, 『新羅華嚴宗研究』, 民族社, 112쪽.

V. 맺음말

지금까지 학계는 元曉를 6頭品또는 5頭品으로 보았기 때문에 진골인 歡喜師로 볼 여지가 없었다. 또한 분황사에만 얽매어 황룡사에서 『금강삼매경론』을 강설한 의미에 주목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元曉는 眞骨로서 황룡사가 소속사찰인 스님이었다. 따라서 황룡사 초주 환희사와 진나보살인 원효의 관계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 졌다.

『삼국유사』 탑상의 황룡사장육조는 황룡사구층탑조에서 일연 이후에 재편집된 조목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다. 그러한 재편집과정에서 미완성된 조목이라는 특성때문인지, 장육조 가운데 갑자기 금당과 역대주지에 대한 내용 등이 나타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진흥왕대부터의 황룡사 조영은 신앙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구층탑이 완성되는 선덕왕대에까지도 미완의 불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구층탑의 조영이나 완성에 즈음하여 황룡사의 초주가 임명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흥륜사금당십성 가운데 제2주인 자장은 보이는 반면에 환희사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아마도 환희사는 그 가운데 다른 어떤 스님의 법명이었을 가능성이 보인다. 그리고 그 가운데 황룡사에서 『금강삼매경론』을 강연한 원효가 나타난다.

환희지란 극희지 또는 초지보살로서 그러한 능력을 보인 승려는 원효가 유일하다. 『송고승전』의 원효전에 나오는 원효의 능력 역시 초지보살의 능력이 다. 따라서 진골인 환희사는 원효보살을 가리키는 또다른 하나의 이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원효가 환희사로 기록되었던 이유는 아마도 계율을 강조하는 제2주 자장, 당에서 귀국한 의상과 그를 계승한 중앙귀족적인 제자들, 당시 원효의 등장으로 주도권을 뺏기기 시작한 유가불교계, 원효의 무애행을 이해못하는 승려 등에 의해서 차츰 원효가 환희사였다는 이름이 역사속에서 희미해졌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여언]

한국불교의 새벽[曉]은 誓幢和尚 元曉스님이 열고 한낮은 佛日普照國師 知訥 스님이 만들고 조선시대 僧軍將으로 이름을 떨친 西山大師 休靜 스님이 저녁노을이었다고 한다. 그럼 지금은 깜깜한 어둠 즉 無明이고 말법시대라는 말이 된다. 우리가 원효성사라고 부르는 小性居士는 경상북도 경산시 자인면 佛地村에서 태어났다. 불지촌이라고 하면 인도 룸비니처럼 부처님 탄생지라는 뜻으로 이해해도 된다. 나중에 붙여진 이름이겠지만, 소성거사의 경지가 적어도 '화엄경'에서 말하는 初地菩薩인 歡喜地에 올랐기 때문이다. 환희지는 보살이 부처의 이치를 깨달아 다시는 성인의 지위에서 내려오지 않고 자신과 남을 이롭게 하는 행동을 하므로 기쁨이 많은 경지다. 고려 숙종 때(1101년)에는 大聖和靜國師라는 諡號를 받은 소성거사는 海東菩薩, 海東宗主라고도 불린다. '金剛三昧經論' 등이라는 팔만대장경에 들어가는 수많은 경전을 지은 것만 봐도 그 경지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소성거사는 15세경에 출가해 朗智와 惠空, 普德 등을 모셨다고 한다. 하지만 한 명의 스승을 모시지 않고 수도에 정진했다. 소성거사는 34세 때 義湘 스님과 함께 당나라 유학의 길을 떠났다. 여행 도중에 해골에 핀 물을 마시고 "진리는 결코 밖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 찾아야 한다."는 깨달음을 터득하고 혼자 돌아왔다. 무소의 빨처럼 오직 홀로 우뚝 서서 걸어가 부처님의 경지를 체득했다. 부처님조차도 부처님[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아닌 그의 가르침인 정법[달]을 따르라고 했다. 이미 법의 등이 밝았으니 나의 등만 밝히면 된다[法燈明自燈明]. 스승을 교조화한 티베트 라마교나 선불교의 조사선의 위험성이 여기에 있다. 은사나 종단의 큰스님이 아닌 정법의 맞는 스승들의 가르침을 따르든가 아니면 그들조차도 버려도 충분히 보살이 될 수 있음을 소성거사가 일생을 통해 보여줬다. 소성거사는 이후 태종무열왕의 둘째 딸로 홀로 있는 璠石公主의 사이에서 설총을 낳았다. 이러한 형식상의 파계를 통해 그는 스스로 小性居士라고 칭하고 속인 행세를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재가자로 지냈다.

“머리를 깎으면 원효대사요, 머리를 기르면 소성거사로다. 몸은 몇 가지로 나투지만 손이 손등과 손바닥이 있는 것처럼 이 두 가지 모습을 한 것은 다만 한바탕의 유희로다!”라는 이규보의 시를 보면 된다. 사실 소성거사에게 승속의 차이가 어찌 있었겠는가? 조선 전기의 性理學者로 영남학파의 종조인 金宗直의 ‘영일현인빈당기’를 보면 “산속에 소성거사의 유적이 있었다”라고 했다. 유학자들도 인정한 소성거사는 ‘발심수행장’에서 “몸은 비록 산중에 있어도 마음이 번뇌와 집착에 매여 있으면 진정한 출가라 할 수 없고 반면에 몸은 비록 세속생활에 놓여 있지만, 마음에 번뇌와 집착이 없으면 출가한 사람과 다름이 없다”라며 스스로 재가자지만 출가한 사람과 다를 게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소성거사는 광대처럼 표주박을 들고 춤추면서 ‘화엄경’의 이치를 담은 “모든 것에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라야 생사의 편안함을 얻느니라”라는 無導歌를 불렀다. 또 다른 거사들과 어울려 술집이나 기생집에도 드나들었다는 얘기는 사료나 비석에는 남아있어도 다시 출가했다는 내용은 없다.

그가 부처님에 경지에 다다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는 출가승려가 아니라 재가자 즉 문수보살까지 가르쳤던 유마거사와 같은 거사다. 소성거사는 본래의 마음을 깨달으면 淨土를 이룰 수 있으며 입으로 부처의 이름을 외우고 귀로 부처의 가르침을 들으면 성불할 수 있다고 가르쳐서 백성들이 모두 ‘나무아미타불’을 외우게 됐다. 실제로 아무리 나무아미타불관세음보살만 해도 정토왕생은 못한다. 그렇지만 그렇게 말하는 또는 말해야 하는 의도는 있다. 하근기의 중생들이 죽는 순간에 맘 편하게 가야 49일의 길 즉 환생의 길을 제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윤회왕생을 돕고자 소성거사께서 보리심을 일으켜서 시킨 것이다. 정토는 사랑하는 당신, 가족, 도반이 함께할 수 있는 이곳일 뿐이다. 이곳이 정토여야 하며 그렇게 원하고 행하는 사람이 바로 보리심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바로 보살임을 소성거사는 실천으로 보여주었다.

경주 高仙寺에 머무르던 소성거사가 686년 3월 30일 이름 없는 穴寺라는 곳에서 70세의 나이로 입적한 이유는 뭘까? 이전에 신라왕이 高僧大德을 모시고 仁王經大會를 열었을 때 사람들이 원효를 천거하자, 다른 승려들이 헐뜯어서

모시지 못한 적이 있었다. 나중에 왕의 명령으로 소성거사가 '금강삼매경'을 황룡사에서 설법하게 하자, 그의 강설은 흐르는 물처럼 도도하고 질서정연하여, 오만하던 고승들의 입에서 찬양하는 소리가 저절로 흘러나왔다. 이에 소성거사는 "지난날 나라에서 100개의 지붕받침나무를 구할 때에는 낄 수도 없더니, 오늘 대들보를 구하는데 나 혼자 그 일을 하는구나!"라고 했다. 이 말을 들은 당시 고승들은 깊이 뉘우쳤다고 한다. 역사적으로 많은 스님을 가르쳤지만, 일부 높은 스님에게 괘시를 받았고 이름 없는 절에서 돌아가신 소성거사는 부처님의 경지에 간 분이다. 앞으로 유마거사와 같은 소성거사라고 부르며 재가 불교의 宗祖로 모셔야 한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본고는 황룡사 초주 진골 환희사의 정체가 다름아닌 원효이며 바로 소성거사임을 밝힐 수 있어 다행이라고 여겨진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료 및 사료비판의 한계상 환희사가 원효가 아닐 가능성 역시 적지 않게 상존함을 밝혀둔다.

논문투고 : 2015. 5. 17, 논문심사완료 : 2015. 6. 9, 게재확정 : 2015. 6. 13

참고문헌

- 高翊晉, 1989, 『韓國古代思想史』, 東國大出版部.
- 金福順, 2004, 『新羅華嚴宗研究』, 民族社.
- 金相鉉, 2000, 『元曉研究』, 民族社.
- 김영태, 1980, 「전기와 설화를 통해 본 원효연구」, 『불교학보』 17, 불교문화연구원
- 盧重國, 1999, 「新羅時代 姓氏의 分枝化와 食邑制의 實施 -薛瑤墓誌銘을 中心으로-」, 『韓國古代史研究』 15, 한국고대사학회.
- 李基白, 1971, 「新羅 六頭品研究」, 『성곡논총』 2 : 1974, 『新羅政治社會史研究』, 一潮閣.
- 田美姬, 1988, 「元曉의 身分과 그의 活動」, 『韓國史研究』 63, 韓國史研究會.
- 崔在錫, 1987, 「新羅時代의 氏族리니지의 存否問題」, 『韓國學報』 48, 1987 : 『韓國古代社會史研究』, 一志社.
- 河廷龍, 1999, 「指空の高麗觀と 法統」, 『三大和尚研究論文集』 2, 佛泉.
- 하정용, 2001, 「三遺事 諸目間 係考」, 『韓史史報』 4, 韓史史 : 2005, 『삼국유사사료비판』, 민족사.
- 하정용, 2004, 「원효의 골품에 대하여」, 『元曉學研究』 8, 芬皇寺 元曉學研究院.
- 하정용, 2005, 「宋高僧傳 元曉 關連記事의 性格」, 『元究』 9, 芬皇寺 元究院.

Abstract

Lama Hwanhui and Wonhyo in Hwangnyongsa Documents of *Samgukyusa*

HA, Do-Gyeom

Lama Wonhyo(元曉) who expounded in Diamond sutra was a noble man (眞骨 : 'Jingol' blood) at Hwangnyongsa(皇龍寺 : Hwangnyong Temple). From the fact that the discussion of Main Edifices and chief monks of many generations suddenly appeared in the article 'A sixteen-feet-high Buddha statue of Hwangnyongsa'(皇龍寺丈六條) of *Samgukyusa* (三國遺事: Memorabilia of the Three Kingdoms) shows that there was reorganization of the article 'the Wooden Stupa at Hwangnyongsa'(皇龍寺九層塔條) after the death of Lama Ilyeon(一然). the Article 'In ten saints of the Main Edifices in the Heungryeunsa'(東京興輪寺金堂十聖條) of *Samgukyusa*, Lama Hwanhui(歡喜師), the first chief monk, was not mentioned while Lama Jajang(慈藏), the second chief monk, was discussed. the Ground of Joy(歡喜地) is another word for the first level of Bodhisattva(初地菩薩) and Lama Wonhyo was the only Bottisatava who reached the extraordinary level of enlightenment. The monks of the era had difficulty grasping Lama Wonhyo's liberated mind. Lama Jajang emphasized the strict observation of the religious precepts. These two factors were presumed to be the background for Lama Wonhyo being labeled as Lama Hwanhui by the monks of his time.

keywords : Wonhyo(元曉), Hwanhui(歡喜師), *Samgukyusa*(三國遺事), Jajang(慈藏)